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행사로 격상된 것이죠.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와의 협조도 잘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 총회를 계기로 서울을 유서 깊은 문화의 도시로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총회마다 전 세계 1,000명이 넘는 출판인들과 지식인들이 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좋은 서울의 홍보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조할 생각입니다.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각 출판사들이 IPA 서울총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대내적인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출판인들이 아직까지 IPA와 IPA 총회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고 있다고 해도 IPA 서울총회가 우리나라 출판문화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신반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떤 출판인들은 “내년인데 벌써부터?”라고 반문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이니, 그 임기 중에 IPA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출판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IPA 홍보에 열을 내고 있어요. 한편으로 IPA 서울총회 기간동안 출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양서들을 많이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IPA 서울총회를 계기로 한국 출판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것 같습니다. 한국 출판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출판을 시작했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천지개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우물 안 개구리도 통했지만 지금은 ‘우물 안 개구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이제 출판인들도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상호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IPA 서울총회를 계기로 세계 출판인들이 한국과 한국 출판을 새롭게 발견할 것입니다. 그 발견은 지속적인 교류로 발전하고 이어 연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세계화 시대 출판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물론 한글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긴 어렵지만 그럴수록 역량 있는 번역자들을 양성해 세계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꼭 노벨문학상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췌록 더 많은 출판인들이 IPA 서울총회에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한해는 모든 출판인들에게 큰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취재 장동석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

## 국제출판협회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IPA는 1896년 파리에서 창설되었고 2005년 현재 66개국의 78개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IPA는 각국 출판계를 대표하는 국가 출판협회들의 모임이며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다.

IPA의 설립목적은 회원국 자국 및 국제권리를 존중하며, 방해 받지 않고 작품을 창작하고 배포하는 출판인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 또한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 유통의 자유 보호 및 증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저작권 보호, 문맹 퇴치, 도서 및 교육자료 부족 문제 극복하고 문화의 한 분야이자 창조산업으로서의 출판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다.

IPA는 총회(General Assembly), 회장,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사무총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회는 IPA의 운영 기구로 각 회원국 당 2명의 대표위원으로 구성되며 각국에는 두 개의 표결권이 있다. 이 대표들은 현직 출판인들로서 자국의 출판 협회에 의해 임명된다. 총회는 매년 적어도 한 번, 대개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기간 중 개최된다. 총회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16개의 회원 협회들을 선출한다.

회장은 총회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회장은 IPA를 대표하고 총회와 집행위원회에서 의장을 한다. 부회장들은 IPA의 목적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IPA 산하 분과들과 지역별 출판협회의 사업을 관리한다. 집행위원회는 회장을 보좌하여 운영절차, 계획, 예산, 정책을 작성 제출하고 이를 총회가 승인한다. 집행위원회에는 현재 표결권을 갖고 있는 15개국 국가 대표가 활동 중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957년 4월에 세계에서 23번째로,



2008년 IPA서울총회 준비를 위한 출판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6년 6월 1일 '2008 IP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헌판식을 갖는 모습이다.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IPA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01년부터 IPA 주요 정책수립 기구인 집행위원회(EC)의 회원국으로서 1명의 대표(Director라고 칭함)를 파견해 활동해오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IPA 집행위원회 회원국으로서 IPA가 어떤 특정 지역의 이해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세계 출판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일하도록 IPA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세계 출판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출판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제출판협회에는 네 개의 산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출판의 자유 위원회(Freedom to Publish Committee), 저작권위원회(International Publishers Copyright Committee: IPCC), 전자출판 및 표준 위원회(E-Publishing & Standards Committee), 도서정책 위원회(Book Policy Committee)이다.

IPA의 가장 중요한 주요 사업은 4년마다 IPA 총회(IPA Congress)와 저작권 심포지엄(Copyright Symposium)이다. 두 행사는 세계 각국의 출판인들이 모여 자국 및 국제 출판계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이며, 또한 국제적 사교의 장이기도 하다.

IPA는 출판인들의 권익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저작권, 지적재산권, 도서 및 각종 출판물 유통 관련 국제법·조약·협정·의정서·규정 등을 모니터링하며, 국제출판계 최신 동향 조사·분석하여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세계 출판계 현황 및 이슈에 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예를 들면 국제 저작권 협정의 국제적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집행 관련) 회원국들의 출판산업 통계를 수합하여 회원국 공통 관심 이슈와 관련하여 각 국가 사례 설문 및 비교 연구하고 있다.

IPA는 2005년 10월, 표현의 자유에 반하여 증폭되는 제약에 맞서고자 국제 출판의 자유상을 제정하여 세계 도처에서 출판의 자유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매년 수여하고 있다. 출판의 자유상에는 5,000스위스프랑에 해당하는 상금이 주어진다. 2006년 9월21일~24일 기간동안 스웨덴에서 열린 요테보리도서전(Goeteborg Book Fair)에서 제1회 출판의 자유상 시상식이 개최되었으며, 2006년 수상자는 이란의 여성출판인 샬라 라히진이었다.

IPA는 국제연합이 인정한 비정부 단체로서, 지적 소유권과 도서 및 관련 자료의 유통에 관한 국제법, 조약, 협정, 의정서, 규정을 다루는 회의에 참가하여 출판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IPA의 목적은 이런 회의에서 도서 및 음악 출판사들의 이해를 정부간의 차원에서 옹호하는 것이다. 또한 IPA는 도서 및 출판사이 제작한 다른 자료들의 자유로운 수출입, 도서에 대한 세금 철폐 및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